2026 시장 전망

증권/보험 _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이 중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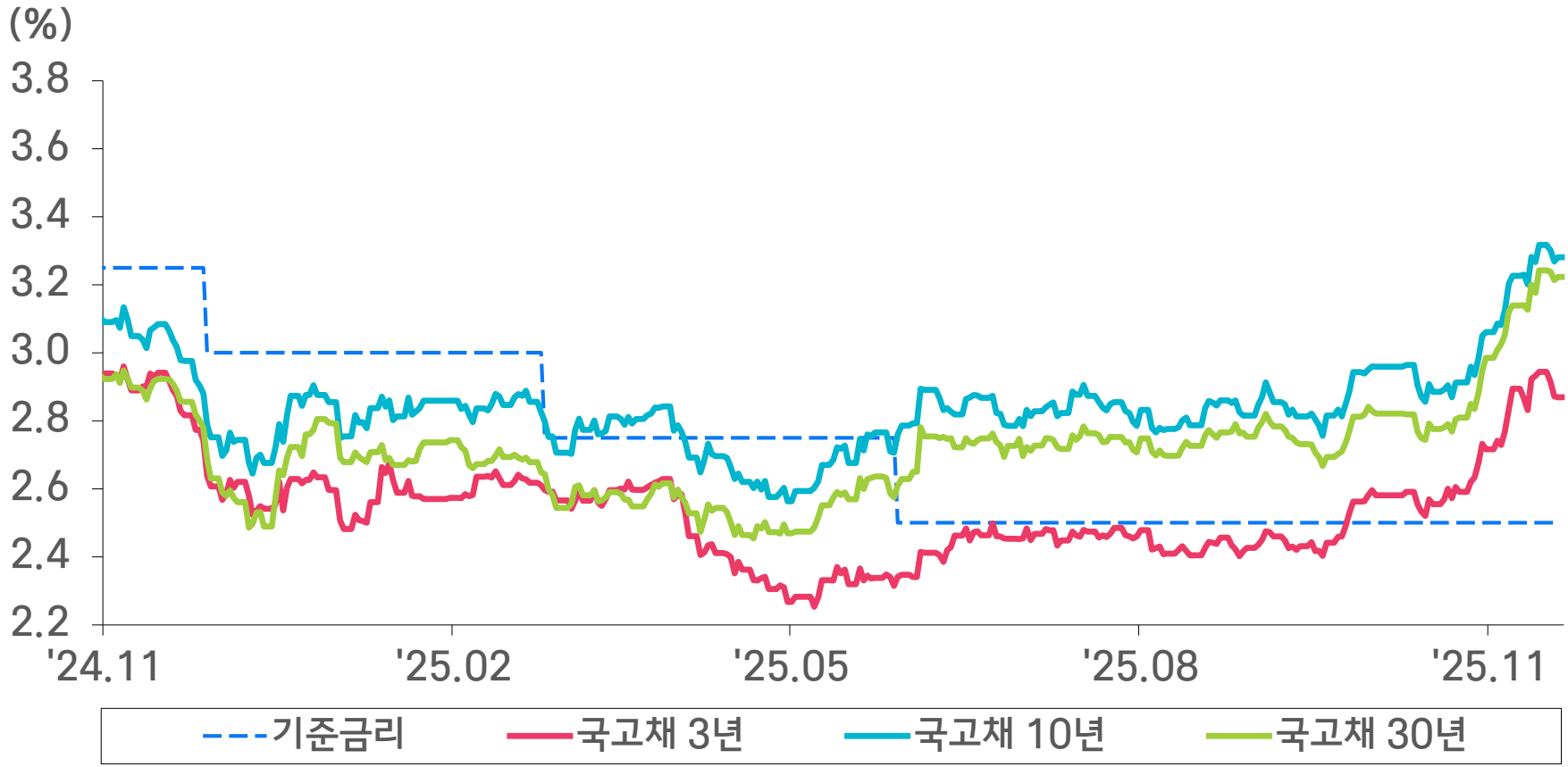
금융/소비재팀 수석연구위원
정민기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,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.
-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,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삼성증권

금융주 – 금리 지표에 기반한 전략 수립 필요

금리 동향: '25년 하반기 기준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채권 금리 상승 폭 확대



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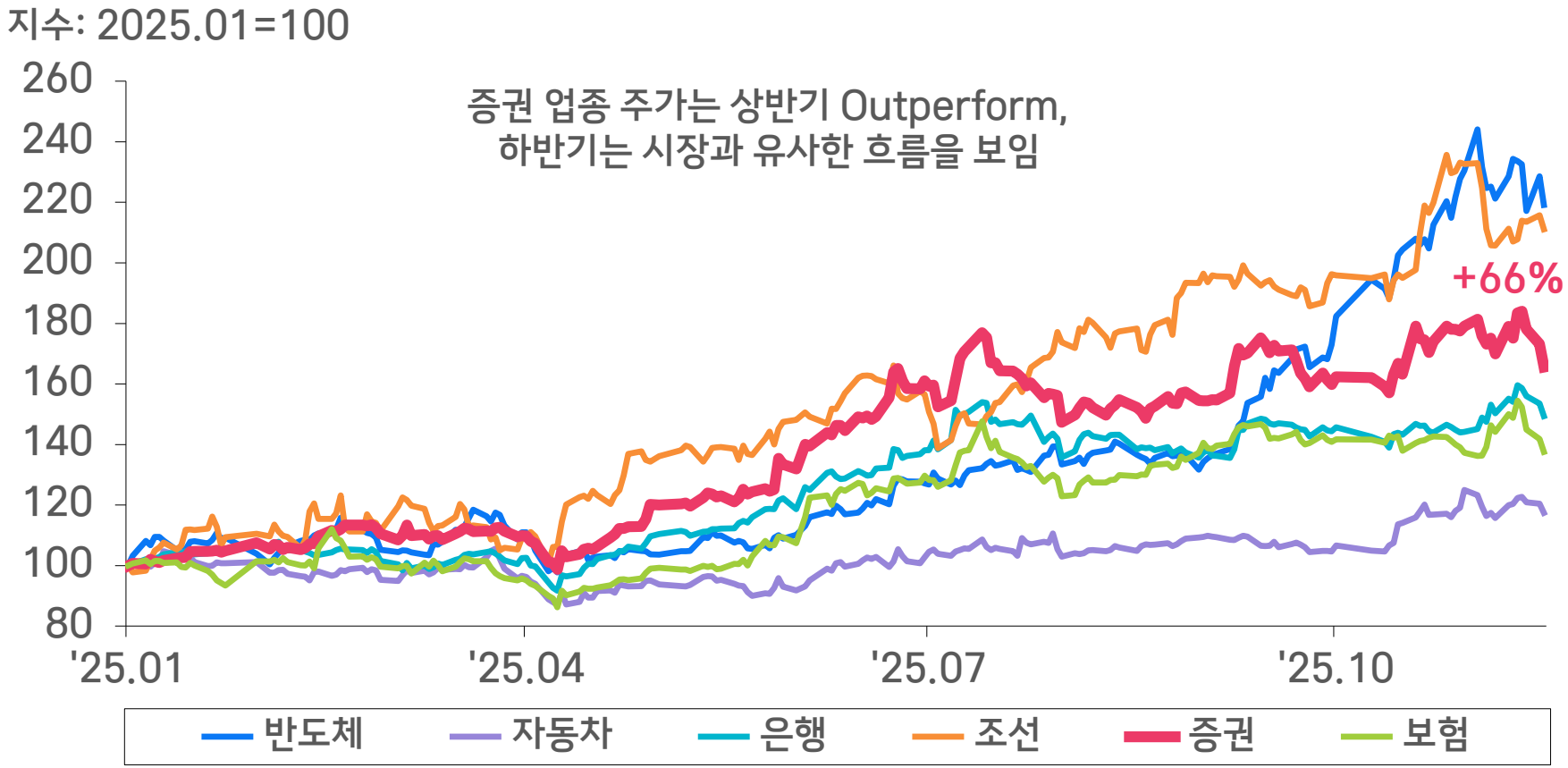
Contents

I. 증권 업종 26년 연간 전망

II. 보험 업종 26년 연간 전망

증권업 – '25년 금융 내 가장 좋은 주가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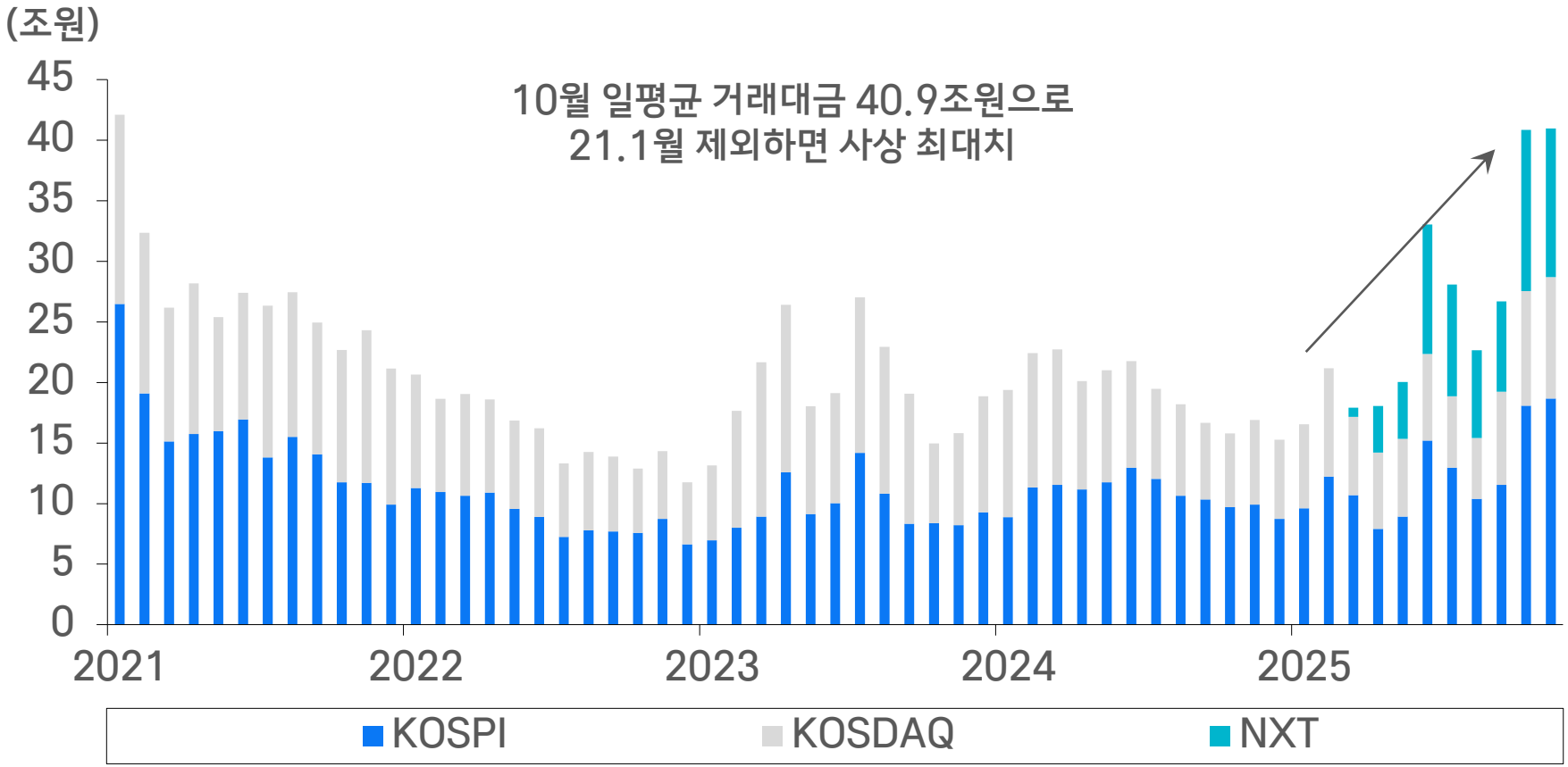
업종별 주가 Performance 추이



참고: WI26 분류 기준 / 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

증시 거래대금은 코로나 이후 가장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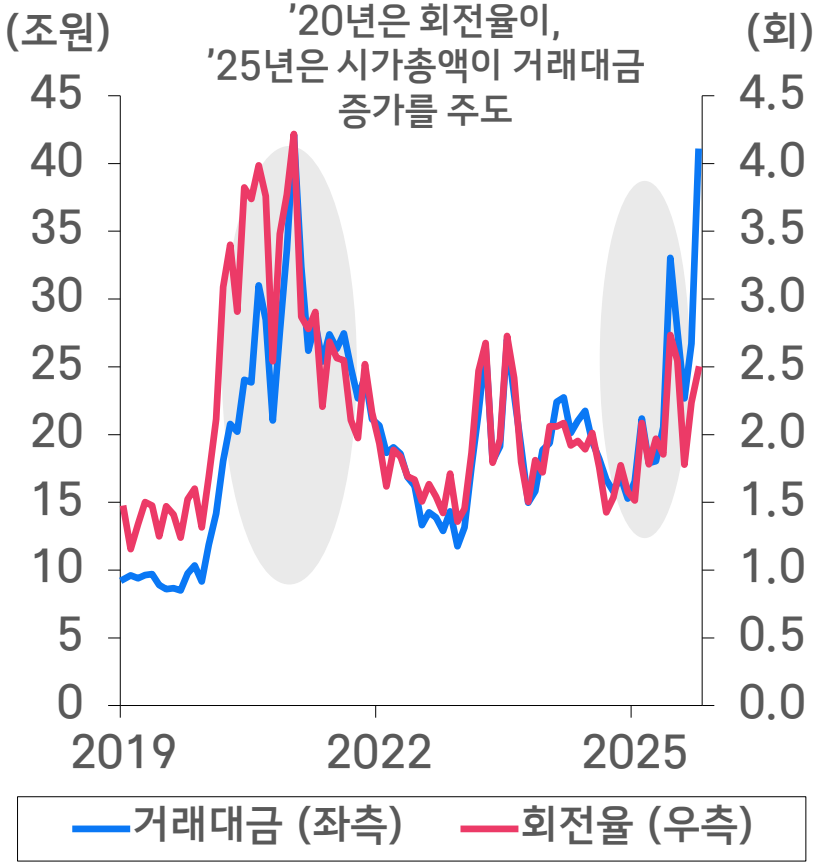
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



자료: 한국거래소, 넥스트레이드

26년 거래대금 또한 전년비 증가 전망

증시 거래대금 및 시가총액 회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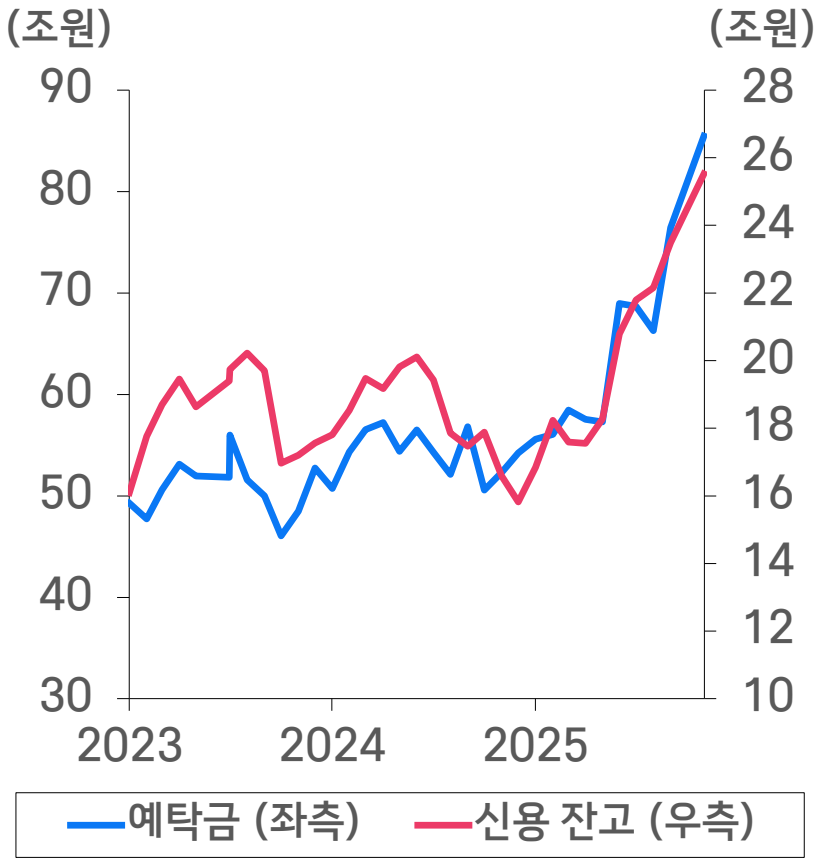
26년 거래대금 전망 – Base, Bull, Bear

	KOSPI 가정 (pt)	회전율 가정 (배)	일평균 거래대금 (조원)	Y-Y 증감 (%)
25E	4,200	3.8	24.6	
26E (Bull)	6,100	4.0	40.5	64
26E (Base)	5,000	3.6	32.5	32
26E (Bear)	3,900	3.5	28.0	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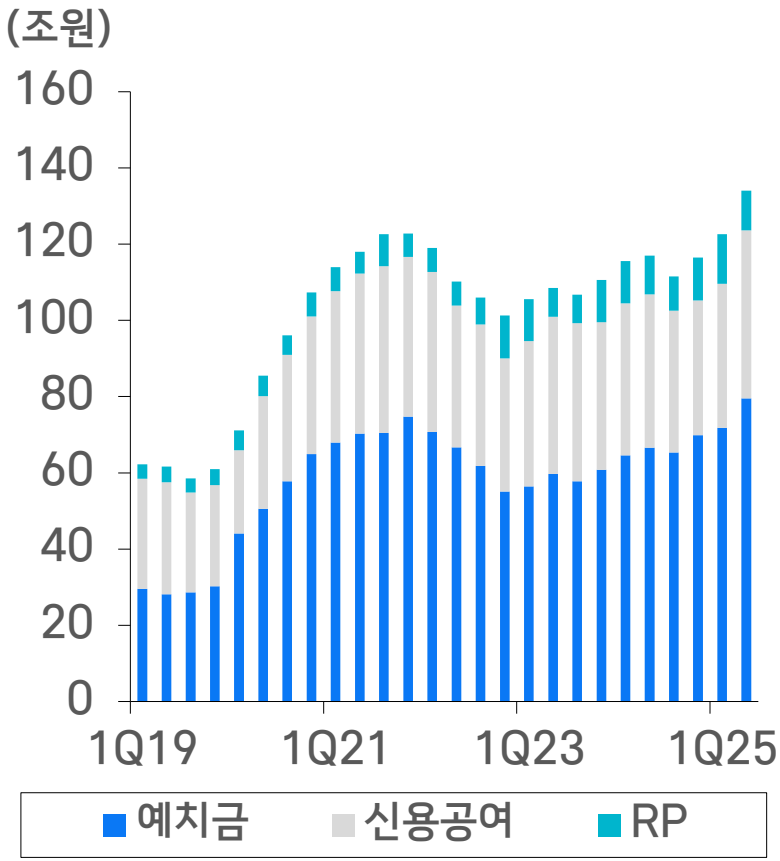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 추정

증시주변 자금은 이자 수익 기반 확대를 촉진

증시주변 자금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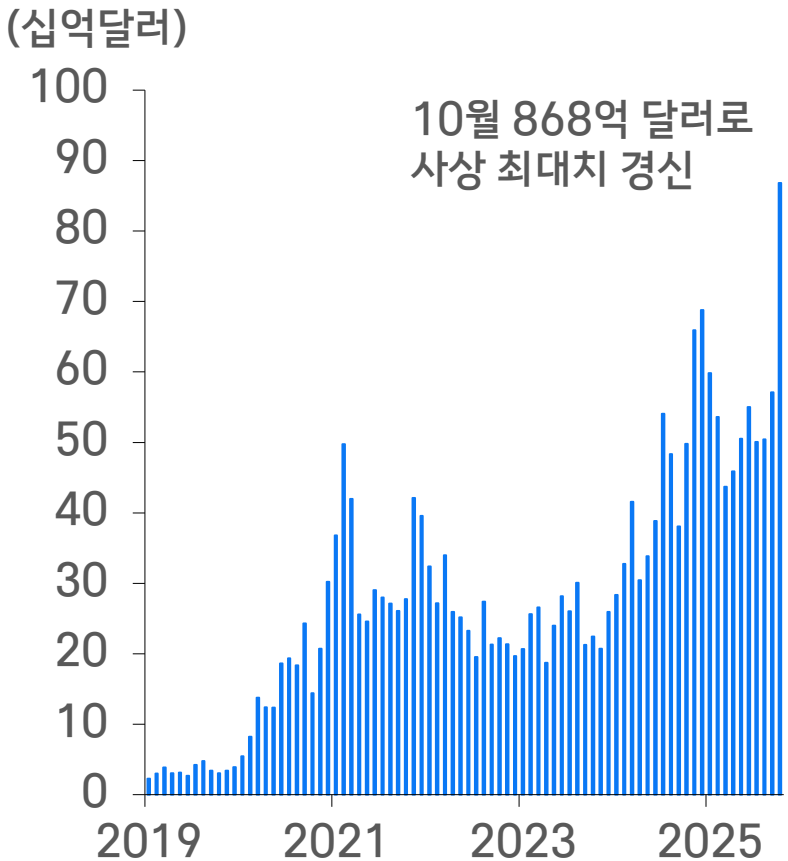
증권사 리테일 관련 이자 자산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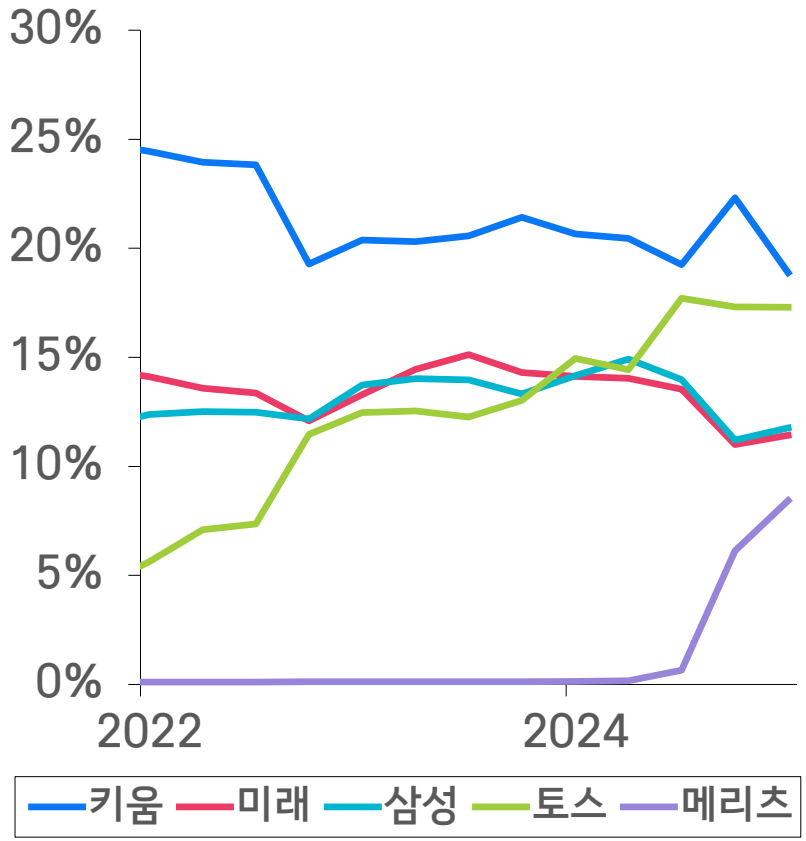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 추정

해외 주식 또한 숨겨진 다크호스

해외 주식 거래대금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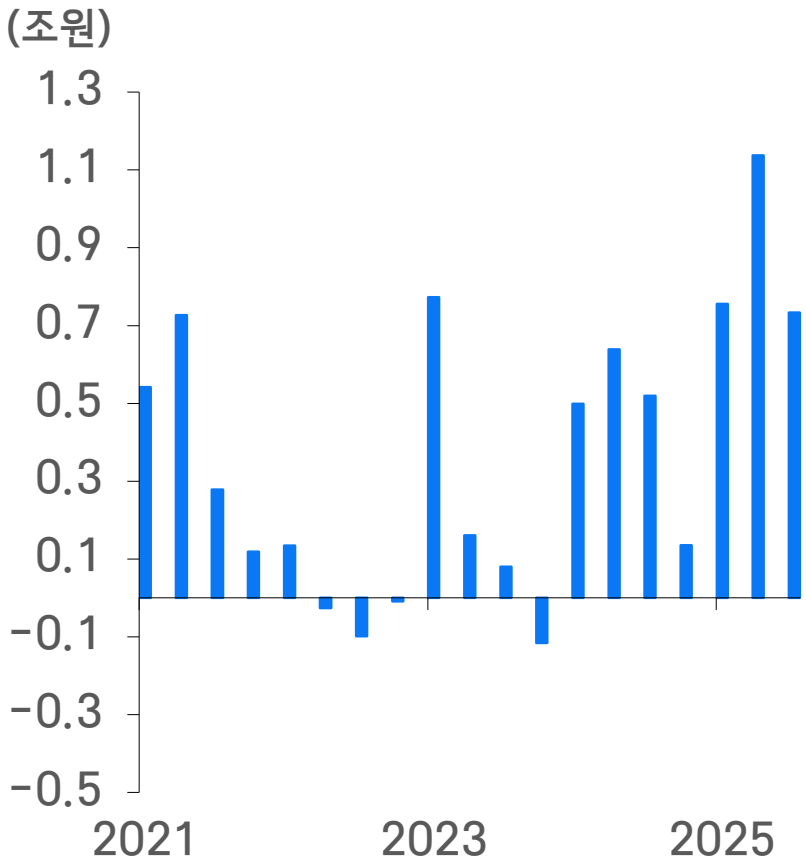
해외 주식 M/S 추이 (약정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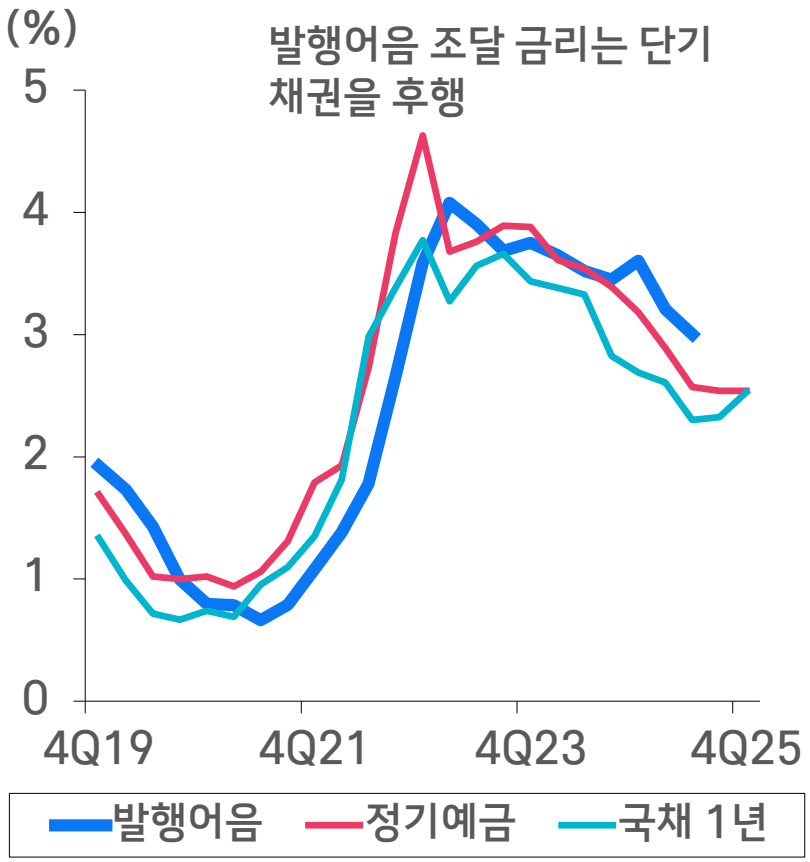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 추정

관건은 금리 상승기 트레이딩 손익 방어 여부

증권사 운용 손익은 금리 인하기 우호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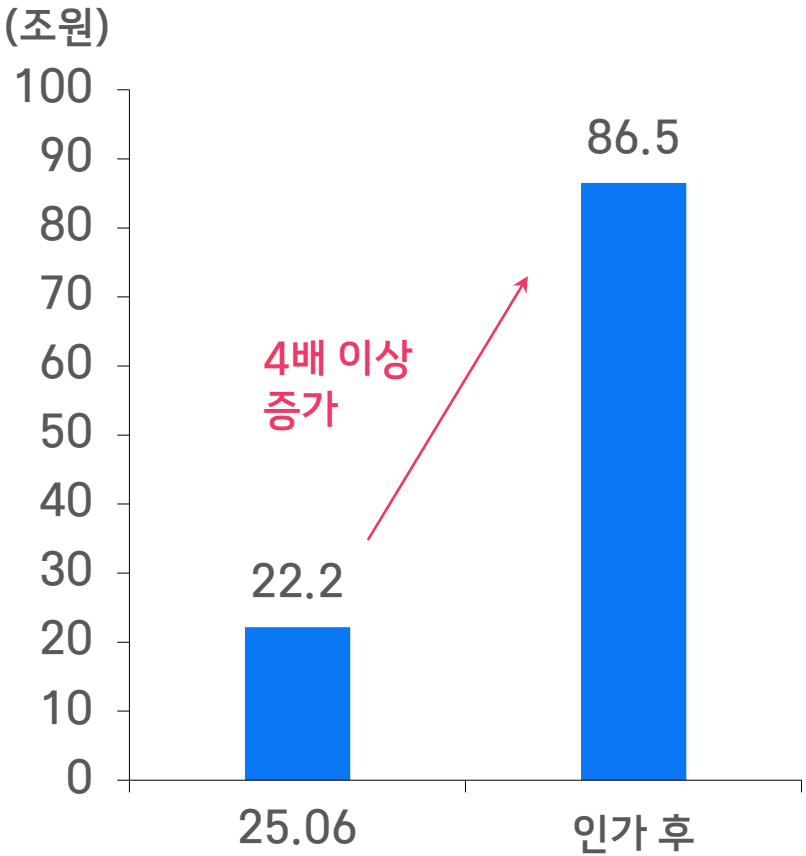
조달 금리 또한 금리와 밀접히 연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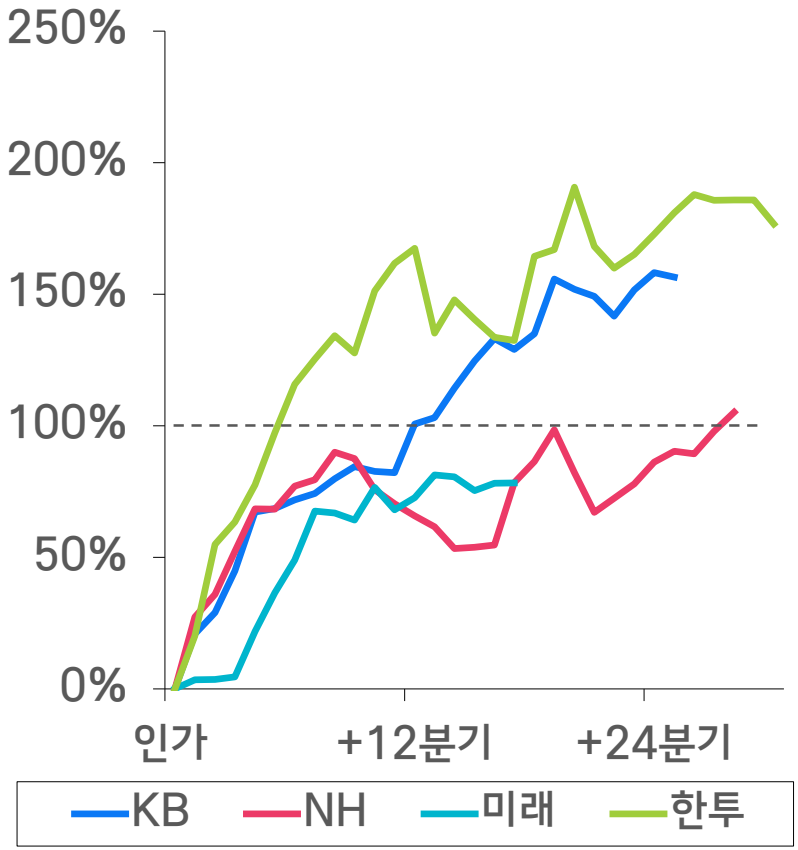
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 추정

신규 기업금융 비즈니스는 회사별 차별화 예상

발행어음/IMA 신규 인가 시 자금 공급 규모



발행어음 인가 이후 조달 속도 비교



참고: 기업금융 자금 공급 규모 기준, 자료: 삼성증권 추정

'26년 증권 업종 종목 선정 Key

1. '26년 증시 거래대금은 '25년 대비로도 증가 가능
2. 운용 손익은 '25년 높아진 기저에 따라, 일부 부담 존재
3. 발행어음/IMA 등 신규 비즈니스 수익 기여에는 다소 시간 소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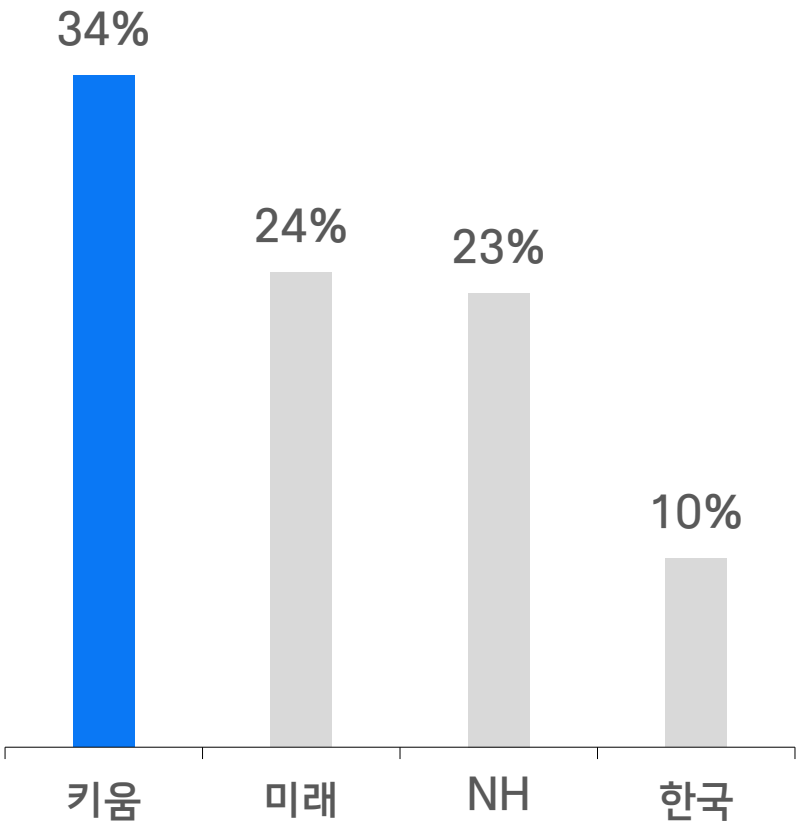
운용 손익 감소를 브로커리지 이익 증가로 만회할 필요

브로커리지 점유율 상위사 + ROE 차별화된 종목 선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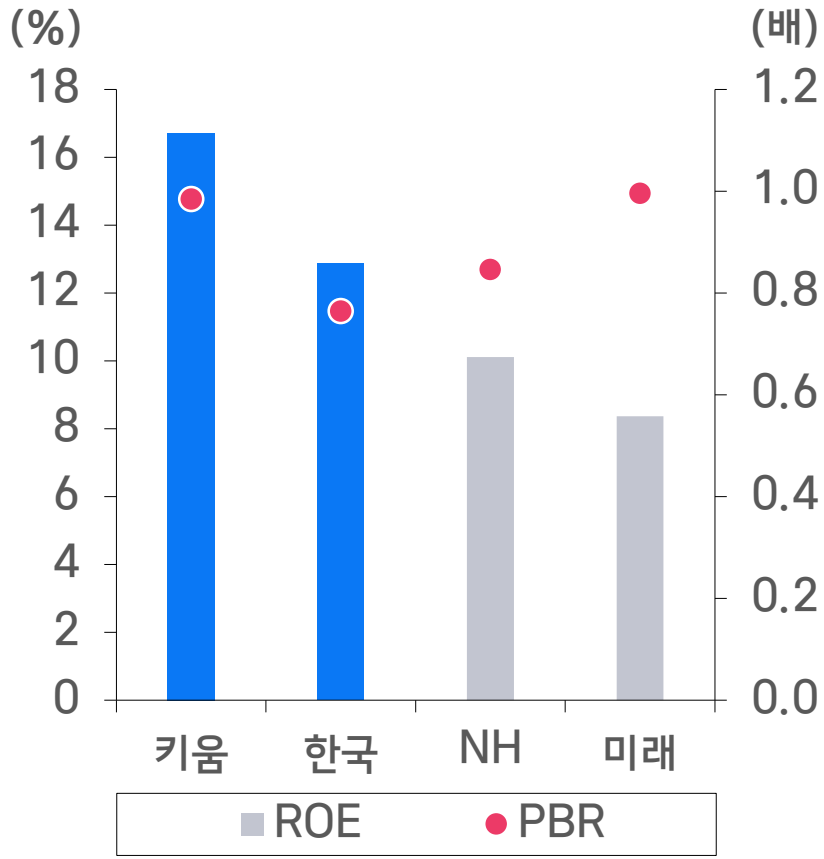
자료: 삼성증권

'26년 증권 업종 종목 선정 Key

브로커리지 비중: 이익 방어력



수익성 대비 저평가: 26E ROE vs PBR



자료: 삼성증권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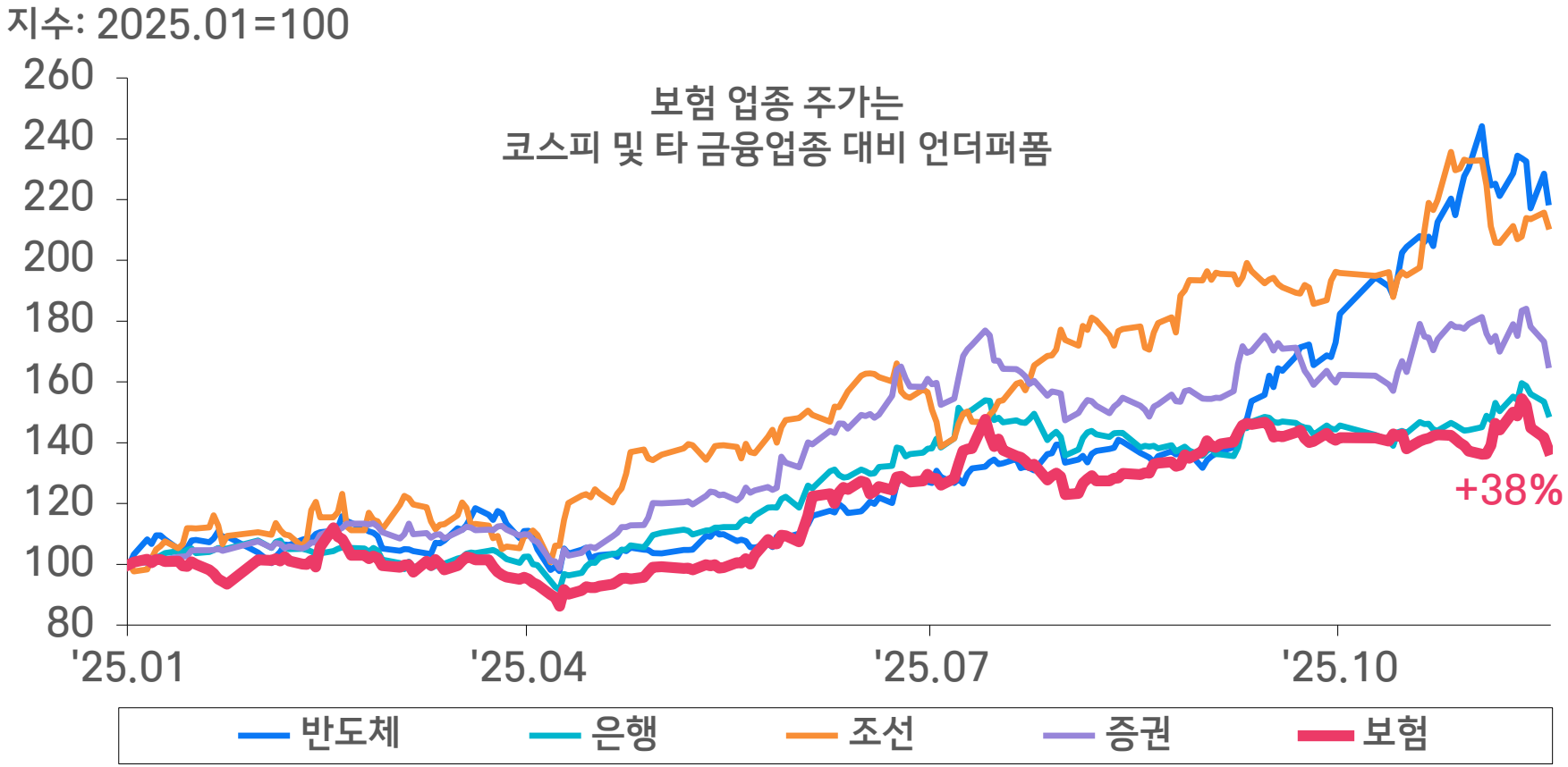
Contents

I. 증권 업종 26년 연간 전망

II. 보험 업종 26년 연간 전망

보험업 – 금융 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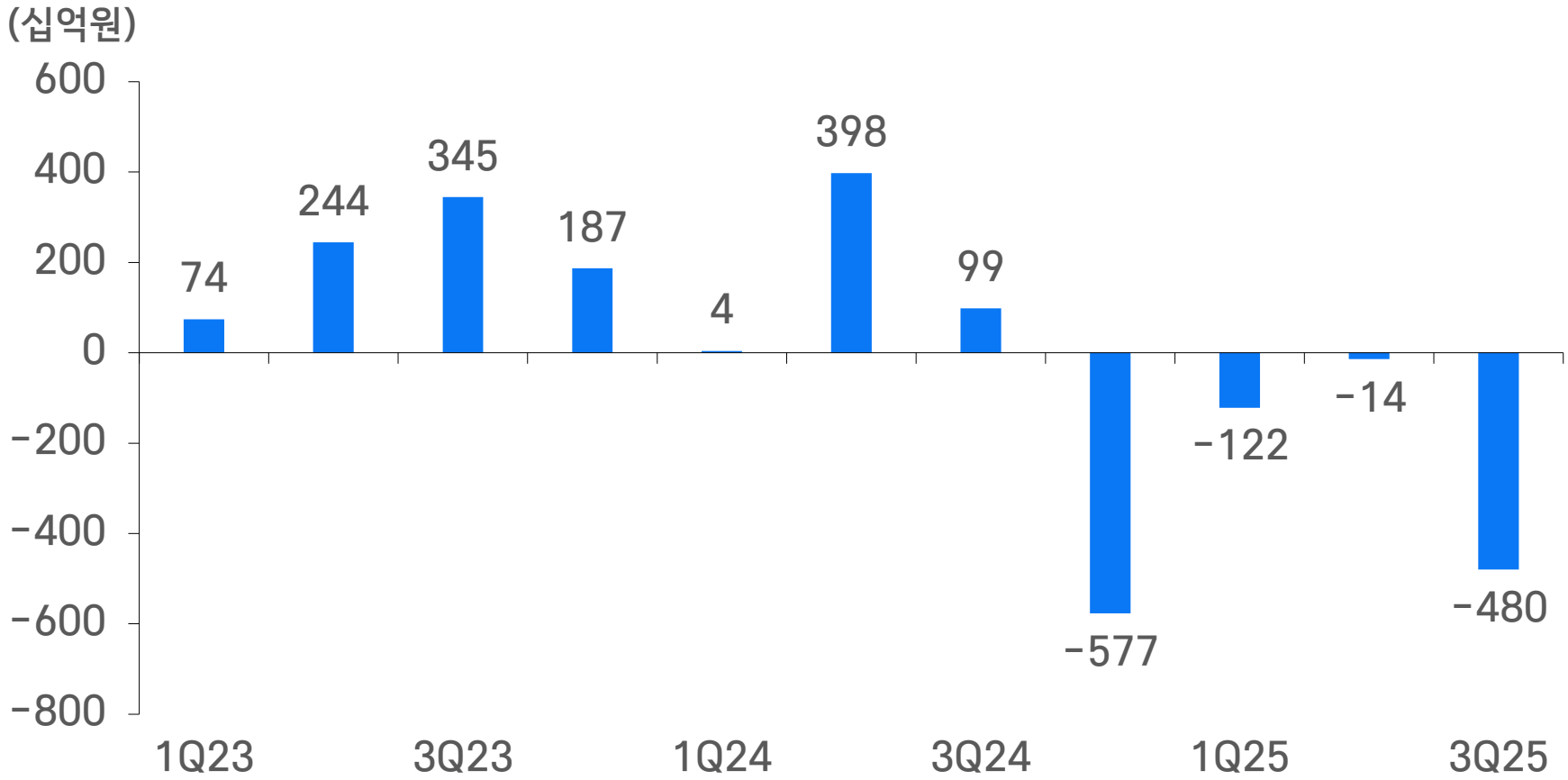
업종별 주가 Performance 추이



참고: WI26 분류 기준 / 자료: Quantiwise, 삼성증권

25년 예실차 적자 폭 확대가 가장 큰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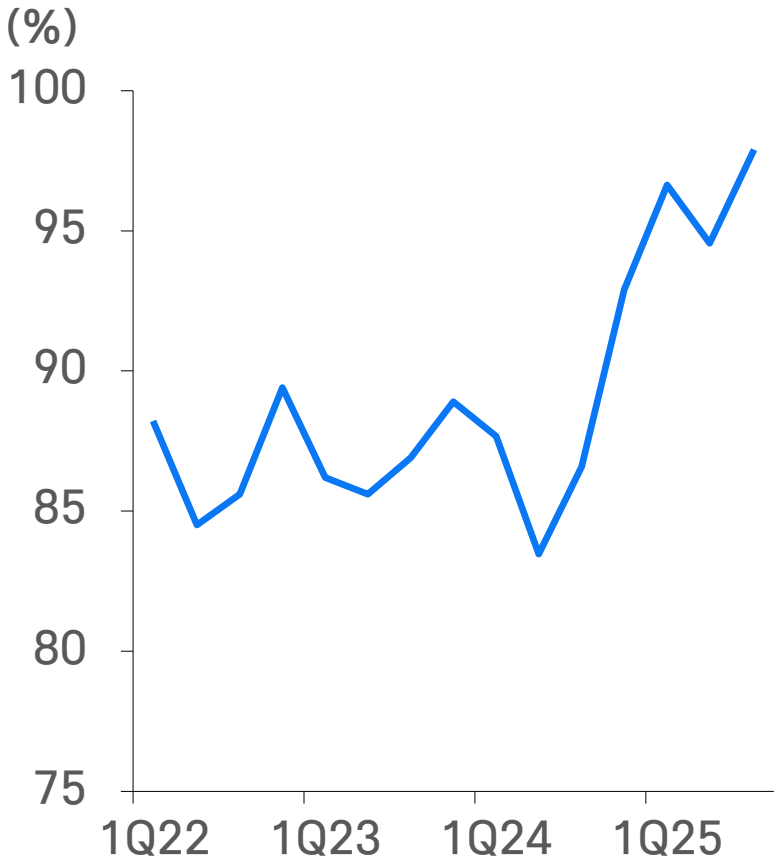
커버리지 보험사 합산 예실차 손익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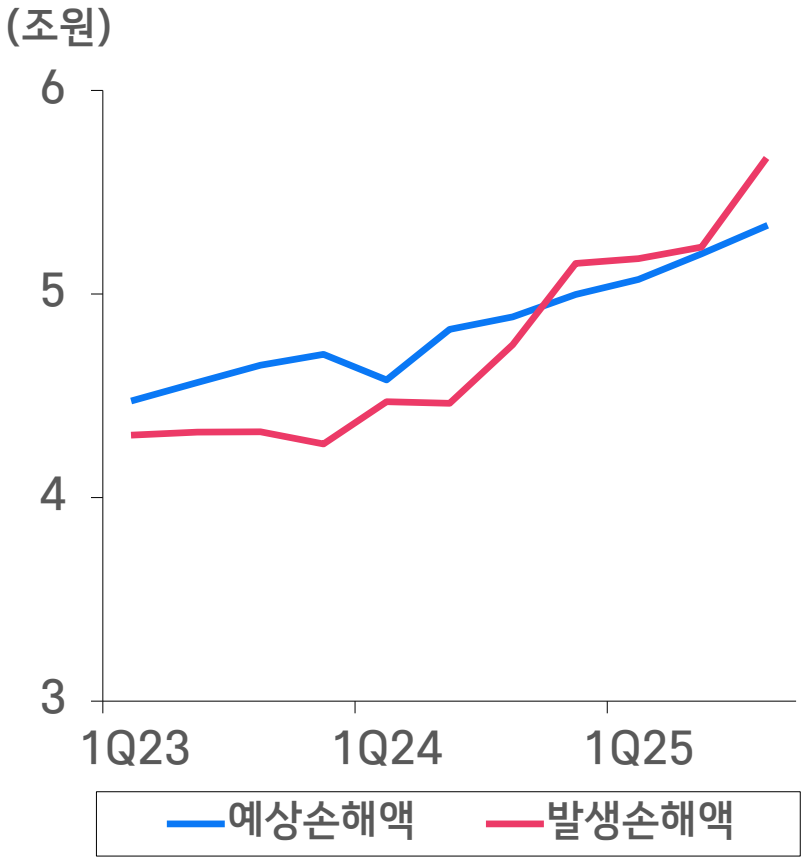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삼성증권

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 유의미하게 증가

삼성화재: 장기위험 손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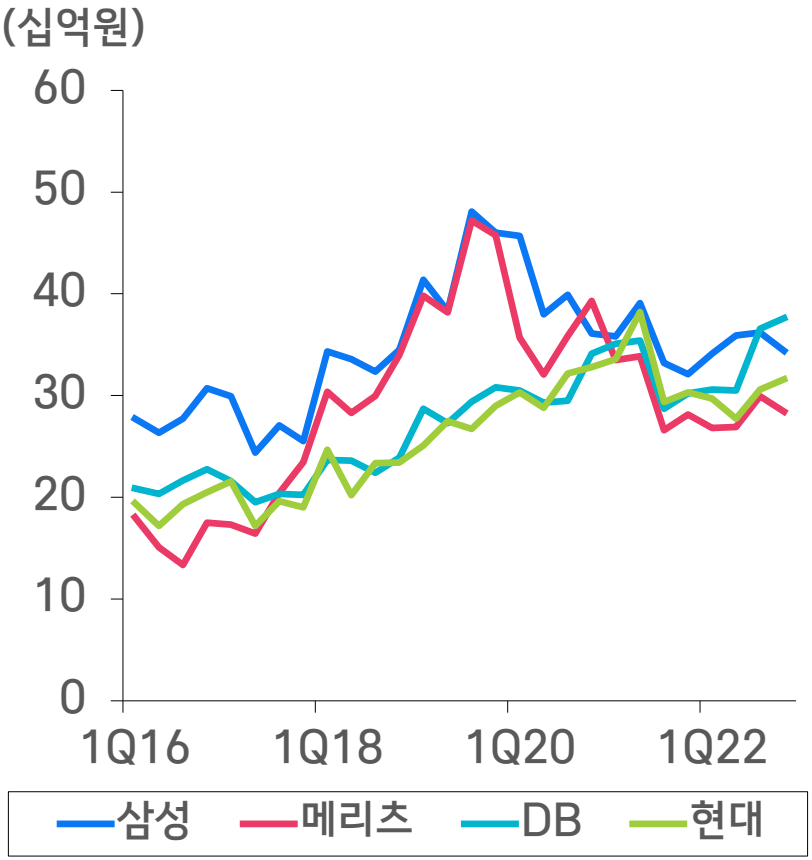
커버리지 보험사: 예상 vs 발생 손해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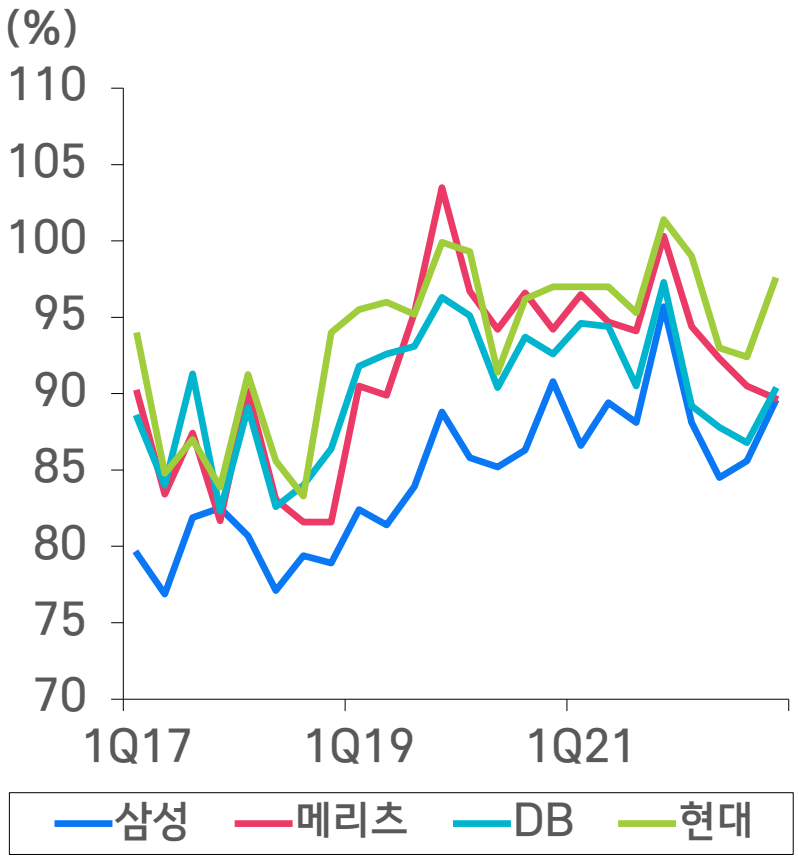
참고: 발생 손해액 = 발생 보험금+발생사고 요소조정 / 자료: 각 사, 삼성증권

출혈 경쟁에 따른 손해율 상승 데자뷔?

신계약 매출: '17~'19년 경쟁 심화 이후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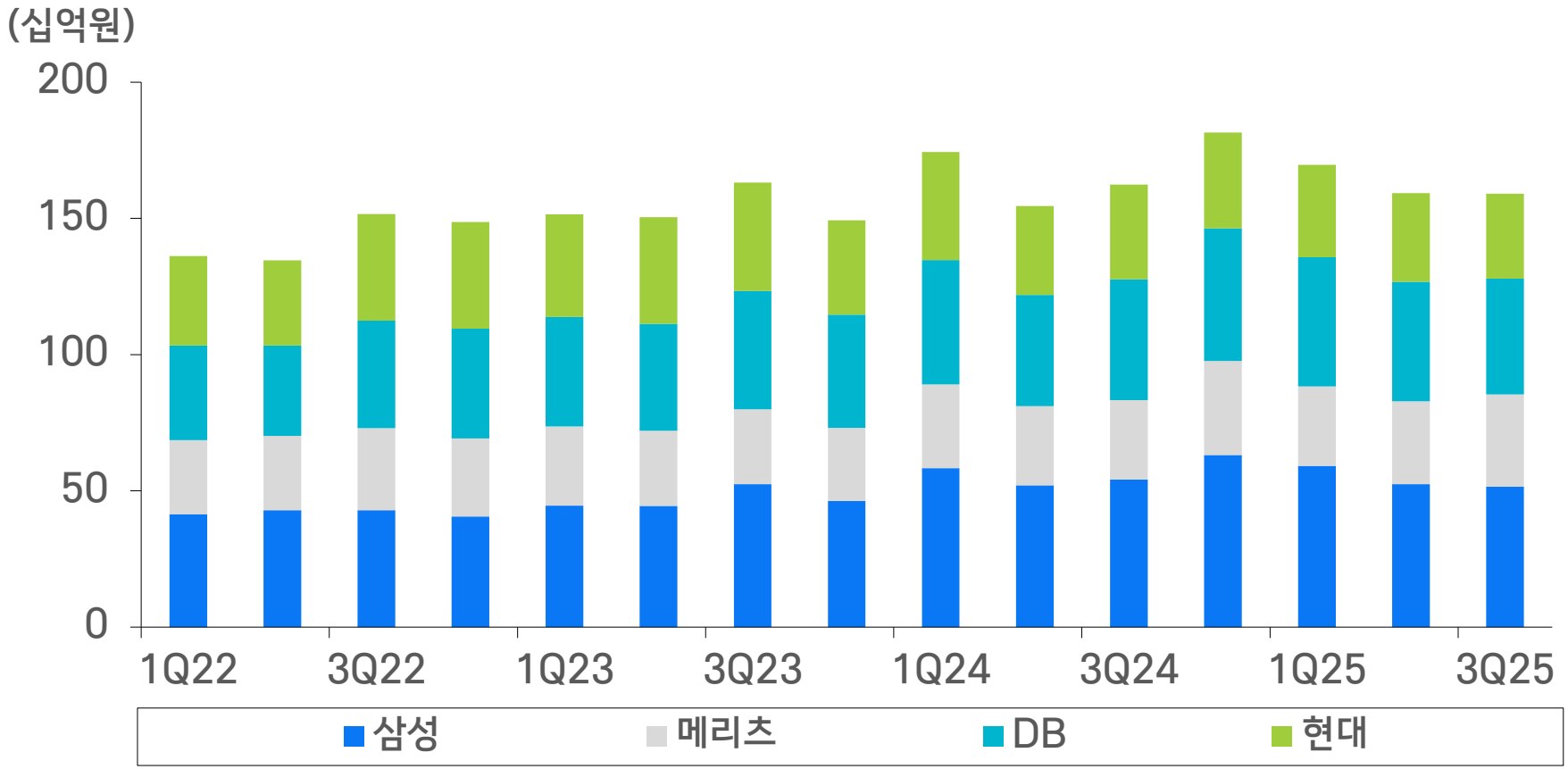
손보사별 위험 손해율 유의미하게 상승



자료: 각 사, 삼성증권

IFRS17 전환 이후 신계약 매출 경쟁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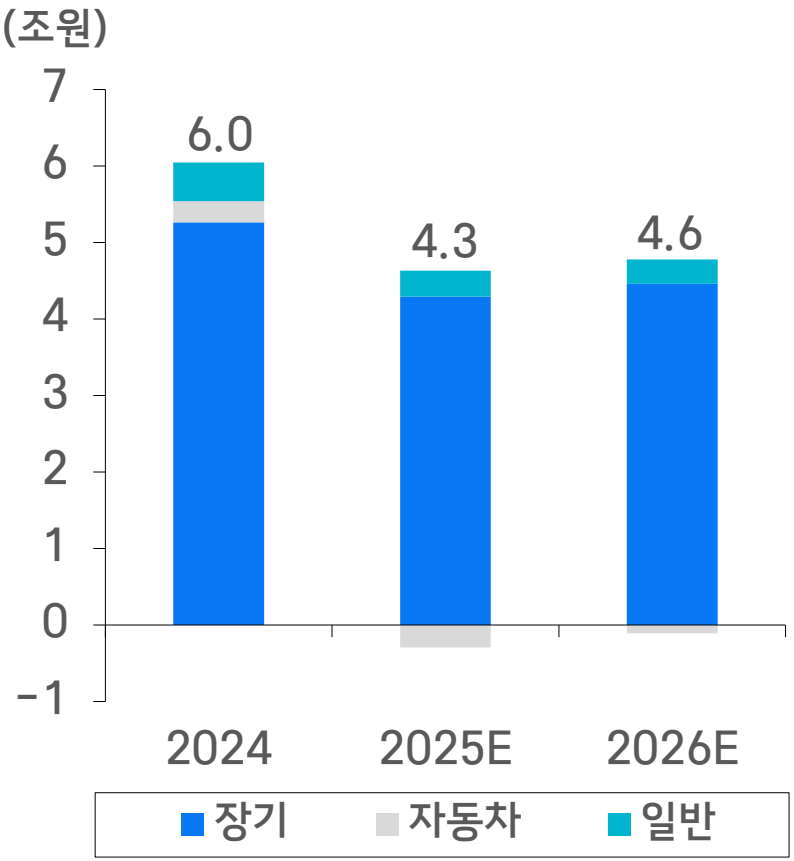
손해보험사 신계약 매출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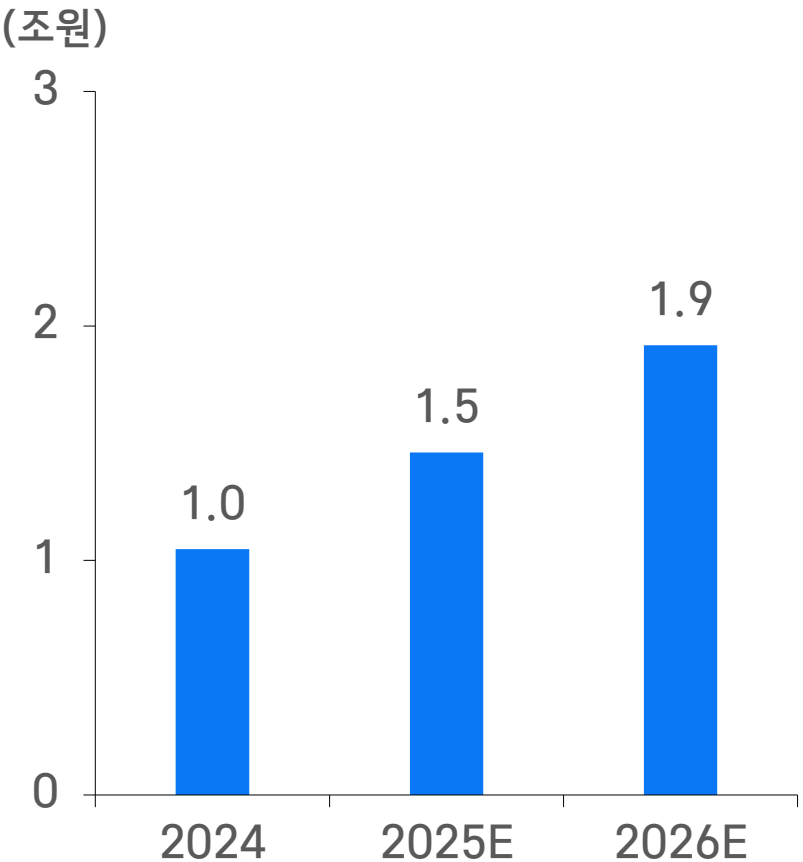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삼성증권

보험손익 손보 정체, 생보 증가 (일회성 고려)

커버리지 손보사: 보험 손익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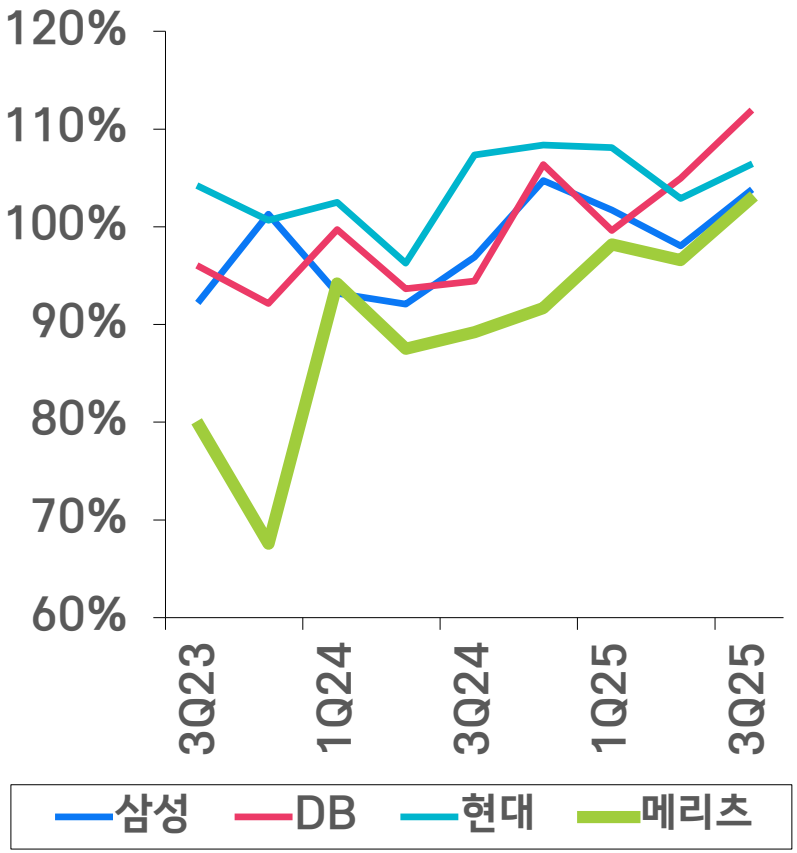
커버리지 생보사: 보험 손익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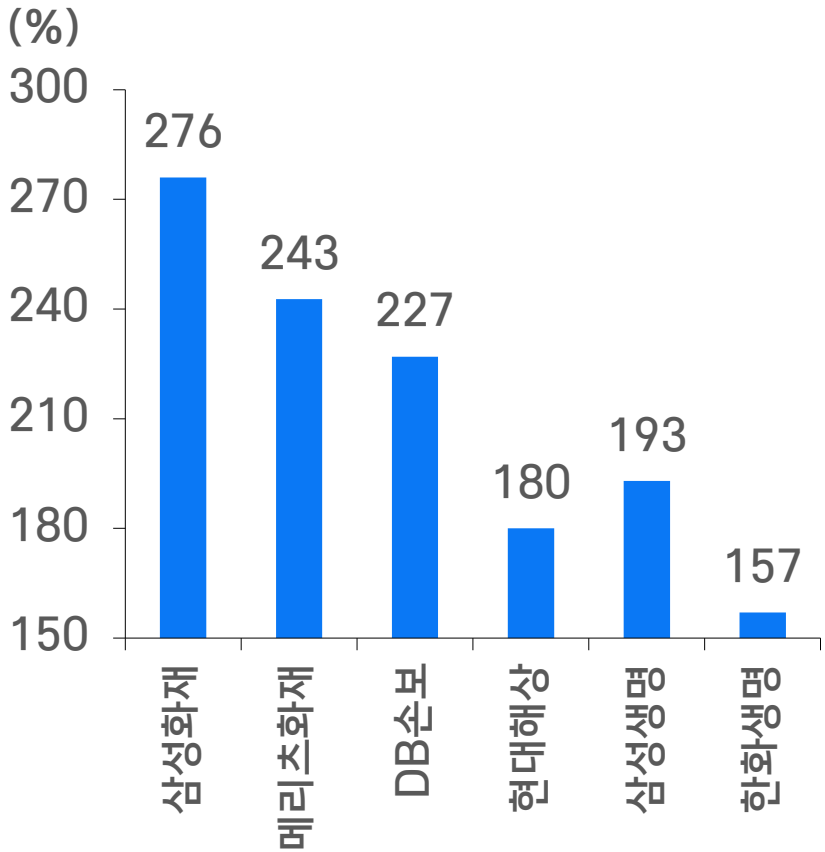
참고: 손보(삼성, DB, 현대, 메리츠), 생보(삼성, 한화) / 자료: 삼성증권 추정

26년 보험 업종 종목 선정의 Key

예상 보험금 대비 실제 보험금



자본 적정성 (K-ICS) 비교



참고: K-ICS 비율은 '25년 3분기 기준 / 자료: 각 사, 삼성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25년 11월 26일 현재 삼성화재, 삼성생명와(과)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1월 2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2025년 11월 2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감사합니다